

유통 라이벌 이번엔 부산서 첫 진검승부

프로야구 전망대... SSG vs 롯데 주중 3연전 추신수는 고향 방문 친구 이대호와 맞대결 삼성은 2015년 이후 6년 만에 20승 선착 노력

한국 프로야구에 '유통 라이벌 구도'를 만든 SSG 랜더스와 롯데 자이언츠가 부산에서 처음 맞대결을 벌인다. 롯데와 SSG는 11일부터 13일까지 부산 사직구장에서 주중 3연전을 치른다. 올해 출범한 창단팀 SSG의 정규시즌 첫 부산 원정이다. 두 팀은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한 차례 맞붙었다. 4월 3일 개막전은 비로 취소됐고, 같은 달 4일 사상 첫 맞대결을 펼쳐 SSG가 롯데를 5-3으로 꺾었다. SSG가 SK 와이번스를 인수해 창

단하면서 형성된 두 팀의 유통 라이벌 구도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음성 기반 소셜미디어에서 롯데를 겨냥해 "그들이 우리를 쫓아와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더 뜨거워졌다. 롯데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지만, 두 팀 사이에는 미묘한 경쟁의식이 형성됐다. 시즌 성적은 SSG가 더 좋다. SSG는 9일 키움 히어로즈와의 더블헤더에서 모두 승리하는 등 16승 14패(승률 0.533)로 공동 3위를 달린다. 롯데는 12승 18패(승률 0.400)로,

최하위(10위)로 처졌다. 하지만 롯데와 중위권과의 격차는 크지 않다. 안방 사직구장에서 SSG를 꺾으면, 롯데도 중위권 싸움에 뛰어 들 수 있다. 부산에서 자란 '전직 빅리거' 추신수(39·SSG)의 고향 방문도 흥밋거리다. 추신수는 시범경기 기간에 사직구장에서 두 경기를 치러 4타수 2안타 3타점을 올렸다. 정규시즌 사직구장 방문은 '생애 처음'이다. 그는 부산고 재학 시절까지만 해도, 사직구장을 찾아 프로 선수의 꿈을 키우던 '롯데팬'이었다. 추신수는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뒤에도 부산에 대한 애정을 끊임없이 드러냈다. 그러나 2021시즌 추신수는 'SSG의 톱타자'로 본다. 추신수의 동갑내기 친구이자 '롯데

의 심장'인 이대호(39)가 손님맞이에 나선다. 이대호는 8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전에서 포수 마스크까지 쓰며 팀 승리를 지켰다. 추신수와 이대호가 펼치는 '프로 첫 부산 맞대결'은 KBO리그 전체가 주목할만한 흥행카드다. 삼성은 2015년 이후 6년 만에 '20승 선착'을 노린다. 지난주 3승을 추가해 19승(12패)으로 선두를 지킨 삼성은 주중 수원 kt wiz전에서 20승 고지 정복에 나선다. 삼성으로서는 상위권 kt, LG 트윈스와 연이어 맞붙는 이번 주가 '선두 수성'의 고비이기도 하다. 두산 베어스 유희관은 주말 SSG와의 인천 방문경기에서 개인 통산 100승 달성에 도전한다. 연합뉴스



2020-2021시즌 프로농구 정규리그 MVP를 차지하고 FA시장에 나온 대어 송교창. 연합뉴스

KCC 송교창·KGC 이재도 거취는?

프로농구 FA 명단 공시 10일 부터 38명 협상 시작

2020-2021시즌을 마무리한 프로농구 10개 구단이 곧바로 선수 영입 경쟁에 나선다.

KBL은 10일 송교창(25·KCC), 이재도(30·인삼공사) 등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은 38명의 명단을 공시했다.

2020-2021시즌 프로농구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인 송교창, 안양 KGC인삼공사의 챔피언결정전 우승을 이끈 이재도의 거취는 이번 FA시장의 큰 관심사다.

송교창은 올 시즌 정규리그 53경기에서 평균 31분 26초를 뛰며 15.1득점 6.1리바운드 2.2 어시스트를 올렸고, 이재도는 54경기에서 31분 39초를 뛰며 12.7득점 3.4리바운드 5.6 어시스트를 기록했다.

더불어 고양 오리온의 허일영

(36)과 한호빈(30), 창원 LG의 이관희(33), 서울 삼성 임동섭(31), 울산 현대모비스 전준범(30)과 함지훈(37) 등도 FA '대어'로 꼽힌다.

10개 구단과 FA 자격을 얻은 선수들의 자율 협상은 이날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

FA 설명회는 1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KBL 센터에서 열린다.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선수들에 대해서는 각 구단이 25일부터 27일까지 영입의향을 제출할 수 있다. 복수 구단이 영입의향을 제출한 선수는 구단이 제시한 금액과 상관 없이 구단을 선택할 수 있다.

영입의향을 받지 못한 선수들은 원소속 구단과 재협상을 하게 된다.

올 시즌 계약 만료 대상 선수 중 2020-2021시즌 출전 가능 경기 중 절반에 미달해 기존 계약이 연장된 정준원(DB), 상무에 입대하는 김광철(삼성), 최성원(SK)은 FA 명단에서 제외됐다. 연합뉴스



"발아라 강속구!" 9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트루이스트 파크에서 열린 메이저리그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경기에서 애틀랜타의 이노아가 호투 하고 있다. 이날 이노아는 타석에서도 2타수 1안타를 기록하며 팀의 6-1 승리를 이끌었다. 연합뉴스

우승 레이스 울산 시계 '짜각 짜각'

K리그1 15R 울산·강원 격돌 제주 - 수원 삼성 순위 경쟁

프로축구 K리그1 선두 전북 현대를 쫓던 울산 현대에 우승 레이스의 전세를 뒤집을 일주일의 시간이 주어졌다. 울산은 12일 오후 7시 30분 춘천송암스포츠타운 주경기장에서 강원FC와 하나원큐 K리그1 2021 15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울산에 이번 강원전과 이어지는 16라운드 수원 삼성전은 후반기 전복과 우승 경쟁 구도의 윤곽선을 그리는 중요한 경기다.

2위(승점 25) 울산은 한 경기를 더 치른 선두(승점 29) 전북에 승점 4 뒤져있다. 격차가 7점까지 벌어질 수 있었으나, 전북이 9일 홈에서 수원 삼성에 1-3으로 달미를 잡으면서 울산에 역전 기회가 찾아왔다.

울산과 전북은 오는 19일 울산 홈에서 17라운드, 시즌 두 번째 맞대결을 앞두고 있다. 그때까지 전북은 두라운드(15R-16R)를 거른다.

전북은 이때 성남FC, FC서울과 원정 경기를 치를 예정이었으나 이들 두 팀이 코로나19 탓에 2주 격리에 들어가면서 경기가 연기됐다.

울산은 강원과의 원정 경기와 수원과 홈 경기에서 연속하면 전북을 제치고 선두로 복귀해 기분 좋게 전북과

맞대결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거꾸로 울산이 강원과 수원을 상대로 원하는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열흘 폭 싹 전복을 다급한 분위기 속에서 상대해야 한다.

홍명보 울산 감독은 강원을 상대로 총력전을 펼칠 전망이다. 국내 선수 대부분이 좋은 몸 상태를 보인다. 부상한 이청용을 제외하면 전력 누수가 없다.

공격형 미드필더 바코가 꾸준한 좋은 모습을 보이는 데다 시즌 초반 다소 실망스러웠던 스트라이커 힌터제이가 지난 광주FC전에서 K리그 데뷔골을 터뜨리는 등 외국인 자원들의 경기력도 분례도에 오르는 모습이다.

울산은 개막전에서 강원을 5-0으로 완파한 좋은 기억을 되살려야 한다.

다만, 햄스트링 부상에서 지난달 복귀해 강원의 핵심 전력으로 빠르게 자리 잡은 원백 겸 미드필더 임창우는 경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수원은 같은 날 오후 7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제주 유니티드를 상대로 리그 2연승에 도전한다.

지난 라운드 홈에서 수원FC에 1-3으로 밀격을 당해 5위로 처진 제주는 다시 선두 경쟁권으로 올라서기 위해 반드시 수원을 잡겠다는 각오다.

제주라는 '대어'를 낚은 수원FC는 11일 홈인 수원종합운동장으로 최하위 광주를 불러들여 시즌 첫 연승에 도전한다. 연합뉴스

제주 근대5중 학생선수단 전국대회 선전

금2·은1·동2... 메달 휩쓸어

제주 근대5중 학생선수들이 전국 대회에서 메달을 휩쓸었다.

제주특별자치도 근대5중연맹은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전남 해남 우슬체육공원 및 국군체육부대에서 개최된 제23회 한국학생연맹회장배 전국 근대5중경기대회에서 남중부 근대2종경기 단체 1위와 개인 3위, 여중부 근대2종 개인 2위와 개인 3위, 남중부 근대4종 릴레이경기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주사대부고 근대5종팀은 남중부 근대4종 릴레이경기에 출전한 윤민중

(2학년)과 김윤서·이지호(1학년)가 총합계 점수 1193점을 획득하며 앞서 열린 제4회 전국근대5중선수권대회 동메달에 이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귀일중 근대3종부는 남중부 근대2종경기에서 팀을 이룬 강수완·정윤재·강우호(1년), 이창우(2학년)가 2위 경북체중, 3위 원봉중을 차례로 물리치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남중부 근대2종 개인전에서는 귀일중 1학년 강수완이 개인 3위, 여중부 근대2종에서는 귀일중 1학년 이호연이 개인 2위, 귀일중 3학년 허다운이 개인 3위를 차지했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축 임
CONGRATULATIONS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용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제일중학교 21회 동창회
회장 우용철 외 회원 일동

축 임
CONGRATULATIONS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용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노형초등학교 15회 동창회
회원 일동

축 상
CONGRATULATIONS

행정안전부장관표창



송종화
(세만초)

새마을의 날을 맞이하여 영예로운 행정안전부장관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여산송세 원운공과 수사공손 제주종친회
회장 송성군 외 종친 일동

축 임
CONGRATULATIONS

제6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손유원
(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제6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 한국주방
대표 고일천